

‘떠돌거나 방치’ 전남 문화예술품 관리부실 도마

도자기 파편 등 출토유물 수천점
도의회 지하 주차장 등 떠돌다
옛 지사 공관 ‘수리채’ 등 쌓여
도청 수장고엔 미술품 널브러져

전남지역 문화예술품과 유물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 보관·관리되지 않은 채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고분 등에서 출토된 유물 상당수가 수용 공간이 없어 방치되고 있고, 전남도청사 내 수장고에 쌓인 작품들마저도 곰팡이가 피거나 찢어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향 전남’의 낯부끄러운 현실로 체계적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출토유물은 총 3,741점(임시보관 3,318점, 학술자료 403점, 참고자료 14박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에서 발굴된 도자기 파편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중 구슬류와 금강 목걸이 등 2,800여점은 현재 나주 국립박물관에 대여해 전시중이다. 나머지 500여점은 문화재단 내 연구소 유물 정리실과 보존과학실에 임시보관 중이다.

하지만 분지 취재결과, 보고서 작성 전 등 사유로 아직 국가에 귀속되지 않거나 학술·참고자료로 분류된 나머지 유물들(403점, 참고자료 14박스)은 옛 전남지사 공관으로 사용됐던 도청 인근 ‘수리채’ 한켠에 덩그러니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자료 14박스에는 1개 박스당 도자기 파편 등이 수백개에 달하는 수천개가 밀봉돼 있는 상태다.

특히 수리채에 쌓여있는 학술자료와 참고자료들은 재단 연구소 공간 부족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9년여간 전남도의회 지하 주차장 창고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출토 유물들은 도의회 주차공간과 사무공간 부족으로 지난달 주차장 증설 공사가 시작되자 가마니에 담겨 모두 수리채로 옮겨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학술자료와 참고자료 중에서도 시간이 지난 후 재평가로 인해 국가귀속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원칙대로는 학술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에서 출토된 도자기 파편 등 유물들이 전남도의회 주차장 창고에 수년간 방치되는 등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전남문화재단이 재단 내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에서 출토된 파편들을 맞춰 원형으로 복원하고 있는 모습.

자료와 참고자료들도 문화재단의 인증을 받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문화재단은 앞으로 수리채 사용허가를 받아 수장고와 연구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이 나온다.

지난 2006년 17억6,300만원을 들여 지사 공관으로 준공된 수리채는 1층 연회장, 2층 객실 등으로 이뤄졌다. 전남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전남도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1층은

유물 수장고·조사용품 보관시설·보존과학실로, 2층은 사무실·유물정리실·촬영실·자료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설계를 마치고 공사용역 업체 공모를 앞두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짐 /임채민 기자

근로자 ‘반값 아침’
광주, 전국 첫 시작

‘간편한 한끼’ 하남에 개소

근로자 조직 지원 사업인 ‘반값 아침’ 서비스가 27일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시작했다.

광주시는 이날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간편한 아침 한끼’ 개소식을 열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간편한 아침 한끼’는 광주시가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근로자들은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절반 가격(3,000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을 전일까지 주문하면 배달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수요 등을 파악해 김밥 등 간편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고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다.

광주시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복지 증진을 물론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위기 속 근로자들의 경제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근로자 조직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근로자들에게 간편하지만 든든한 한끼가 되길 바란다”며 “조직 지원,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등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소확행’ 정책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하남산단 시범 운영 만족도를 파악해 현재 100~120인분인 지원량 확대, 김밥 등 메뉴 다양화, 다른 산업단지로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광주전남연구원 8년만 ‘재분리’

이사회 19명 중 17명 찬성

7월께 ‘전남연구원’ 개원

광주전남연구원이 8년만에 재분리 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광주전남연구원 임시이사회에서 연구원 재분리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의견서와 함께 지난 16일 각각 진행한 공청회 결과를 제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7명이 분리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은 2015년 민선6

기 당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통합된 이후 8년 만에 재분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광주전남연구원 기존 법인은 전남이 승계하고 광주는 법인을 신설하는 형태로 분리된다.

이날 의사회 의결에 따라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 연구원 연구기획경영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인력, 재산, 연구자료 등 분리 실무작업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조례 개정, 신임 원장 채용 등 제반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7월께 전남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시·도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상생연구 체계를 잘 갖춰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양 시·도가 각각 연구원을 충분히 키워내 광주·전남 전체의 연구역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했다가 1995년 광주시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2007년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가 2015년 민선 6기 당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됐다.

민선8기 들어선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생활 환경이나 산업구조가 다른 광주와 전남의 정책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분리하자는 주장과 함께 초광역 협력 흐름에 역행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임채민 기자

INSIDE NEWS

전두환 손자, 5·18 사죄 방문 주목 ▶6면
아름다운 동행/박상일 올리브 대표 ▶7면
금타 광주공장 이전 사실상 무산 ▶18면

www.518run.com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23회

5·18 마라톤대회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다함께 땀시다!

일시

2023. 5. 20 (토)

집결 08:00
출발 08:30

장소

광주 승촌공원 운동장 (승촌보 내)

종목및참가비 ▶ 5.18km 10,000원
10km, 하프코스 30,000원

접수기간 ▶ ~ 2023년 4월 21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 전화, 팩스, 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TALK 카카오톡 ID : jndnnews

주 최

후 원